

# 이스라엘의 여명

\* 6/7(월) 사무엘상 ① 1-4장

사무엘 1-7장	사울 8-15장	사울과 다윗 16-31장
<p>▶ 사무엘의 출생 및 성장 1-3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 한나의 기도</li> <li>·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림</li> <li>· 사무엘 vs. 엘리 아들들 : 행동의 차이, 운명의 차이</li> <li>· 여호와와의 선지자 &lt;사무엘&gt;</li> </ul> <p>▶ 여호와와의 언약궤와 전쟁 4:1-11</p> <p>▶ 엘리 가문의 몰락 4: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의 죽음, 이가봇의 슬픔</li> </ul> <p>언약궤의 행방 5:1-7:2a</p> <p>회개와 부흥, 에벤에셀 7:2b-14</p> <p>사사 사무엘의 활동 7:15-17</p>	<p>사무엘의 아들들 8:1-3</p> <p>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여호와와의 응답 8:4-22</p> <p>이스라엘의 왕 사울 9-11장</p> <p>사무엘의 고별사 12장</p> <p>사울의 통치 13-15장</p>	<p>다윗의 등장 16장</p> <p>다윗과 골리앗 17장</p> <p>다윗과 요나단 18:1-5</p> <p>사울의 폭주, 다윗의 도피 18:6-30장</p> <p>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 31장</p>

## Before 줄치며 읽기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 됨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 After 묵상하기

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까?

사무엘서는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자녀로 상징되는 축복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굴이 깊어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 • 나실인 법으로 드린 기도 : 어머니 <한나>

그녀의 기다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난 것이었습니다(1:5-6).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임으로 인한 그녀의 심적 고통은 해 마다 가중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브닌나라는 ‘가시’도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는 레아와 라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창 29:31). 그러나 한나는 라헬과 비슷한 입장이면서도,  
라헬이 레아를 괴롭힌 것처럼 브닌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희생양이 되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녀를 주시면 여호와께 평생 바치겠다고  
‘나실인 법’으로 서원했습니다(1:10-11).  
그녀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은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창 30:22, 출 2:23-25).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시 126:5).

##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 자식 농사에는 실패, 제자 교육에는 성공 : 제사장 <엘리>

엘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1:13-14).

그는 또한 부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드린 성물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레 7:28-36, 신 18:3).

그러나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치기 ‘전’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갔습니다(2:13-14).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였습니다(2:12).

엘리는 이 사실을 익히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2:23-25, 3:13).

여호와께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집안을 몰락시키시고,

사독 계열이 새로운 제사장의 반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 가문은 영광이 떠났습니다(이가봇, 4: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 사무엘을 길러내십니다.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3:8-9).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까지도 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를 가르쳤습니다(3:17-18).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각자의 역할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 이스라엘의 여명 :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즉시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신 17:14-20).

이스라엘에 참된 왕을 세우시기 위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룯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눈물의 기도로 낳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입니다.

한나의 고통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자, 이스라엘의 고통과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king maker) 폐위시키기도 하며(king breaker),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3:19-20).

이스라엘에 여명(黎明)을 비추십니다.

기나긴 기다림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여명이 밝아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여호와의 속도를 신뢰하십시오.